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교육*

유재덕(서울신학대학교/부교수)

paulu@stu.ac.kr

한글 초록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전파력과 치사율에 주목한 WHO는 글로벌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나, 효과적인 치료제를 확보하지 못한 채 상황이 악화되자 팬데믹으로 상황 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 및 여행 제한에 따른 경제위기 때문에 자유무역 중심 세계 경제체제 붕괴와 세계화의 퇴조가 거론되고 있다. 팬데믹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치리더십이 도전받고, 사회는 비접촉과 부동성 문화로 급속히 전환 중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탈학교화라는 개념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물리적 공간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교회교육 역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들은 팬데믹에 관한 신앙 및 신학적 성찰, 온라인 예배와 체계적인 신앙교육, 그리고 비대면 중심의 목회까지 포괄하는 이른바 뉴노멀을 기대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교육은 급변하는 주변 상황에 부응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면서 의미 있는 기독교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교육 신학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 아울러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한 모바일(또는 온라인)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비대면과 면대면 학습을 혼용하는 학습방식(Blended Learning)을 도입하고, 교회학교와 홈스쿨링을 결합해서 교회와 가정의 교육의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2020년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이며,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교육위원회 및 교육부 교육정책세미나(2020. 7. 6)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춘계/추계 학술대회(2020. 8. 20)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했음.

《 주제어 》

COVID-19 팬데믹, 교회교육, 뉴노멀, 교육신학, 모바일(온라인) 교회학교, 블렌디드 러닝, 홈 스쿨링

I. 들어가는 말

2019년 12월 31일, 중국 보건당국은 우한(武漢)의 대형 시장 관련자들의 중증 호흡기 집단감염 사례를 최초로 보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나중에 COVID-19로 명명)로 분류된 감염병의 전파력과 치사율에 주목한 WHO는 '글로벌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Patel & Jernigan, 2020, 140). 2020년 3월 11일 기준으로 100개국 이상에서 바이러스의 유행이 확인되고 수천 명이 사망하는 한편, 매일 수천 건의 확진 사례들이 발생하자 WHO는 감염병의 최고 경보 수준에 해당하는 '팬데믹'(pandemic, 감염병 대유행)으로 방역 단계를 상향해서 조정했다(Mischke, 2020).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20)는 "COVID-19를 퇴치할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더불어서 현재까지는 "COVID-19에 적합한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따로 없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기 전까지 취할 수 있는 효과적 조치로서 국가 간 이동 제한이나 공공장소의 폐쇄, 휴교 및 집단모임 금지 등을 서둘러 추진했다.

팬데믹의 완벽한 진압이 간단하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그 이유로는 먼저, 치료제와 백신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무증상 기간에도 바이러스 수치가 높고, 전염력 역시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사스(SARS)에 비해 압도적인 COVID-19를 제압하지 못하면 과거 전 세계적으로 대략 4천만 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이른바 '스페인독감'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18년 조선총독부 통계연감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 759만 인구 가운데 288만

4천 명이 스페인독감에 감염되어 14만 명이 사망했다(송홍근, 2020). 전체 인구 100명 중 1명꼴로 희생자를 낸 것이다. 아울러서 COVID-19가 유전적 변형을 일으켜 마치 풍토병(endemic)처럼 자리를 잡거나 스페인독감 사례처럼 계절 변화에 따라 팬데믹이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백신을 성공적으로 확보해서 팬데믹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도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보다 더 강력한 감염병이 출현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최악의 가능성은 상존한다(Fox-Skelley, 2017).

어쨌든 유발 하라리(Yuval Harari)의 지적처럼 현재 팬데믹의 상황을 전 반적으로 조망해보면 가까운 미래에 안전을 담보하는 확실성은 어느 곳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해서 “선택의 자유는 최고치에” 도달하고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것들이 갑자기 이루어지고 … 수십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대미문의 실험”이 진행 중이다(안희경, 2020b).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Thomas Frey) 역시 지금의 팬데믹을 인류 역사상 가장 값비싼 위기라고 정의한다. 프레이는 향후 인류는 “식품, 항공, 교육 등 … 을 재건하는데 전무후무한 비용을 지출할 것이며 기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완벽한 폭풍’(perfect storm)에 휩싸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한 마디로, ‘블랙 스완 가운데 블랙 스완’을 목격하는 대변혁(reboot) 직전에 있다는 것이다(김문관, 2020).

실제로 경제적 차원에서는 개방경제와 자유무역 중심의 세계 경제체제 붕괴 조짐과 함께 20세기 중반 이후 국제사회를 주도한 ‘세계화’(globalization)의 퇴조가 거론되고 있다. 팬데믹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각국의 정치리더십이 도전받고, 사회는 비접촉(non-contact)과 부동성(immobility) 문화로 급속히 전환 중이다. 이런 낯선 현상은 교육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 사례를 보면 일부 대학은 재학생 자퇴로 인한 재정문제로 폐교했을 뿐 아니라 조만간 상당수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양영유, 2020). 어떤 면에서는, 20세기 중후반부터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이른바 탈학교화(deschooling)라는 개념이 팬데믹 덕

분에 물리적 공간에서 본격적으로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교회와 교회교육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초래한 위기와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격리와 차단 중심 방역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사스(Sars, 2002년)나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Mers, 2015년)처럼 일시적으로 유행하다가 소멸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고 7개월 가까이 팬데믹이 지속되자 교회들은 방역당국의 지침처럼 비대면 예배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주력하던 초기 대응에서 벗어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신앙 및 신학적 성찰, 온라인 예배와 체계적인 신앙교육, 그리고 비대면 문화를 반영한 목회방식과 재정 문제까지 망라하는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 논문 역시 방역과 안전 문제 때문에 공교육과는 대조적으로 거의 해체 수준에 직면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교육의 향후 방향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II. COVID-19 팬데믹과 사회 변화

1. 세계화의 퇴조

팬데믹에 따른 영향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전 세계를 주도해온 ‘세계화’(globalization)와 그 이론적 근거인 ‘세계주의’(globalism)가 퇴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문명사적 전환으로까지 간주되던 세계화는 시공간을 응축하는 테크놀로지와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발전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경제 구조 형성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왔다(Papastephanou, 2005). 정치적으로는 개별 국가의 영토에 기반을 둔 근대 국가라는 전통적 개념을 해체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과 인력이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무역

을 지속하고, 동시에 문화적으로는 국가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동질화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세계화를 해석해왔다. 최종적으로는 초국가, 또는 세계국가의 완성을 지향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 비판을 받았던 세계화는 역설적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원초적 생활환경이 초래한 팬데믹 공포 때문에 탈세계화나 ‘지역 중심 세계화’(glocalization)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안희경, 2020a).

실제로 세계 각국이 국경을 차단하도록 만든 감염병 팬데믹은 인구 밀집성이나 대도시 발생과 관계가 깊다(Karlen, 2001, 79-103). 역사적으로 볼 때 질병은 유목이나 농경에 익숙한 주민들이 도시로 이동해서 밀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역학자들은 밀집화와 감염병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목적으로 불과 연료라는 은유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때 밀집성 질환(crowd disease)은 불, 세균 및 바이러스성 질환의 숙주에 해당하는 인간은 연료로 간주된다. 본격적인 도시화 이전까지는 특정 질환이 동물 숙주를 떠나서 마을이나 유목집단을 감염시키더라도 소수집단의 경우에는 곧장 모두 사망하거나 면역력을 확보한다. 이처럼 수용적 숙주라는 연료가 고갈되면 밀집성 질환이라는 불은 곧장 소멸한다. 반면에 초고밀도 군집 생활이 가능한 도시는 대규모 감염병의 온상이 되었다. 아노 카렌(Arno Karlen, 86)은 공기, 직접 접촉, 물, 곤충 같은 매개체가 도시의 밀집생활과 결합하면서 감염성 질병이 증폭되었다고 지적한다.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 1998, 297-298)는 농업과 세계적 교역로의 개발을 팬데믹 원인에 추가한다. 유목민이나 수렵채집민은 특성상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서 바이러스의 위협을 벗어날 수 있었다. 반면에 채집보다 대략 1백 퍼센트 이상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하는 정주형 농민들은 병균에 오염된 분뇨나 설치류 동물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교역로 발달 역시 로마시대 이후 유럽과 아시아, 북아프리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일종의 거대한 세균 번식장을 형성했다. 덕분에 2세기 중반(165년-180년)에는 천연두로 수백만의 로마시민이 사망했

고, 불규칙하게 출현한 흑사병은 6세기와 14세기에 걸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다이아몬드(298)는 그런 측면에서 항공기처럼 시공간을 응축하는 교통망 때문에 세계는 세균의 도가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초연결 사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지속될 인구 밀집성과 대도시, 교역로의 확대는 COVID-19를 비롯한 다양한 감염병 확산을 초래해서 지역 중심 세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 디지털 문화의 가속화

대부분 예상하듯이 팬데믹은 디지털 문화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원격교육, 원격진료, 원격근로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팬데믹 이전까지 교육계는 디지털 매체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디지털 지지자들은 “인터넷이라는 글로벌 매체는 우주를 압축하고 민족 간 대화를 북돋우며 전 지구 차원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인쇄술이나 화약의 발명처럼, 세계를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Curran, 2012, 3). 일각에서는 더 나가서 “인터넷 버추얼 스페이스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혁신은 거의 신비에 가까운 특질을 부여받았다”고 선언했다(Mansell, 2012, 1-2). 디지털 테크놀로지 확산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컴퓨터와 아이패드를 보급하는 교육 테크놀로지 운동(OLPC, One Laptop per Child)이 등장할 정도였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교육의 상호 결합은 정치경제적 이유는 물론이고, 칸 아카데미(Khan Academy)나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같은 원격교육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관론자들의 비판을 받았다(Selwyn, 2013, 141-144).

이런 부정적 상황은 COVID-19 방역의 일환으로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으로 생활문화가 바뀌면서 극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토머스 프레이(Thomas Frey)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디지털 차원에서 다음처럼 세 가

지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백종민, 2020). 첫째, 비접촉(non-contact)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다. 프레이는 비행기 승객이 탑승부터 좌석까지 일체 접촉이 배제된 최근 항공 산업의 변화를 앞으로 전개될 비접촉 문화의 전형적인 사례로 제시하는데, 이런 현상은 사회문화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다. 둘째, 세계 각국은 비가시적인 위협을 감시하기 위해 인공지능 탐지 네트워크의 활용을 본격화할 것이다.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게 프레이의 주장이다. 셋째, 국가의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인권보호 문제가 대두할 것이다. 이런 인권의 차원에서 이른바 잊힐 권리나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권리, 그리고 전혀 감지되지 않을 권리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레이의 예상 중 특히 비접촉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처리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팬데믹이 가속화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급격한 결합은 결국 디지털 네트워크 문화로 한층 더 구체화하겠지만, 대면 상호작용의 부재에 따른 접촉느낌(tangibility)의 상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는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서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과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또는 둘을 동시에 혼용하는 혼합현실(MR, Mixed Reality)로 몰입을 극대화하는 ‘몰입경험’(immersive experience)을 접촉느낌의 보완재로 거론하기도 한다. 실제로 몰입경험은 팬데믹 이전부터 산업계와 의료계는 물론 교육계 전반으로까지 확산 추세에 있다(Greengard, 2019). 또 다른 대안은 인간과 컴퓨터, 물리적 환경이라는 삼각체제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이다. 디지털/물리적 도구로 제작한 디지털/물리적 사물을 실생활에 직접 활용하거나 디지털과 물리적 세계의 경계를 제거할 수 있어서 교육에도 역시 유용할 것으로 평가된다(Cadoz et al., 2014, 756, 760).

유발 하라리가 지적한 ‘개인정보 보호 전쟁’ 역시 해결이 간단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구글(Google) 같은 글로벌 IT기업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상업적 활용을 문제 삼듯이 국가가 방역 목적으로 개인들을 추적 및 관리 하면서 축적한 데이터의 무차별적 활용과 빅브라더 사회의 도래를 염려한다. 과거의 아시아적 가치 논쟁을 연상케 하는 ‘전체주의적 감시’와 ‘시민의 권한’에 관한 논란에서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 2020)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을 개인이 정당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에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은 감염병이 창궐하면 방역 같은 대규모 조치들이 군사적 규율에 의거할 수밖에 없으니 오히려 강한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감벤처럼 통제를 두려워하는 것은 허황된 두려움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부 유럽 언론이 한국의 대처방식을 문제 삼는 것은 오류라고 비판한다. 더 나아가 지젝은 국가의 법과 관련해서 “복종하되 사유하고, 생각의 자유를 지키라!”는 칸트의 ‘이성의 공적 사용’(public use of reason)을 대안으로 제시한다(Zizek, 2020, 127). 어쨌든 팬데믹 종결을 예측 못하는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 가운데 어느 쪽을 우선하는가에 따라서 한국식, 중국식, 그리고 서구식 모델로 분류하고 차등하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고 냉소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안희경, 2020a).

3. 교육체제의 변화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교육체제 전반이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100개국 이상이 전국적으로 교육 시설을 폐쇄한 바 있다. 유네스코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대략 9억 이상 학생들이 학교 폐쇄조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한다(Nicola et al., 186). 팬데믹의 교육적 영향 가운데 하나는 소득 격차에 따른 학습자들의 교육기회 박탈을 꼽을 수 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가 폐쇄되자 저소득층 자녀들은 학교에서 더 이상 무료급식을 제공받지 못할뿐더러 수업을 대체하는 디지털 교육환경에서도 대부분 소외되었다. 이것은 각국 교

육정책 담당자들이 처음부터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서 팬데믹의 이면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위기”가 교육 성취의 격차를 강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Robson, 2020).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는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일본의 일부 지방 대학들은 비대면 원격교육에 필요한 인프라(초고속 인터넷망과 노트북)를 갖추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대면 교육으로 전환한 바 있다.

팬데믹의 영향에 따른 교육의 변화에는 학교로 대표되는 공교육 기관의 역할 축소, 그에 따른 부모와 가정의 역할 확대가 포함된다. 각국 정부들은 각급 학생들의 등교 연기와 학교시설 폐쇄에 따른 학습 손실을 인터넷 기반 원격교육과 가정교육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교육정책 방향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교사 주도의 전통적 학교 수업의 효율성에 대한 회의와 함께 교사의 역할 전환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교사가 정보나 주제를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는 통로 기능보다는 일종의 가이드나 코치의 역할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팬데믹이 종결되더라도 교수(teaching) 중심의 지식 전달은 계속해서 원격수업으로, 교사와 학습자들의 직접적인 대면 교육은 인성교육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제기된다(이재, 2020).

교육계의 또 다른 변화는 가정과 학교 간의 교육책임 전이 현상이다. 컴퓨터와 인터넷,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과 부모의 시간적 여유라는 조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학교라는 전통적 공간에 종속되지 않는 홈스쿨링의 선택 역시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과 학습자들이 새롭게 인식하는 중이다. 달리 말하자면, 학교의 근본적인 효용성을 대상자들이 의도하지 않게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초중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회의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전통적 의미에서 학교는 다음 네 가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당연히 전제해왔다. (1) 학생을 보호하는 기능(custodial case), (2) 사회적 역할의 선별기능(social-role selection), (3) 이론이나 원리 혹은 사상을 주입하는 기능(indoctrination), (4) 기술과 지식을 발달시키는 통상적

인 의미의 교육 기능이 그것이다. 팬데믹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는 이 네 가지 기능의 결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종합기관(total institution)의 신성한 권위를 위협한다(Reimer, 1982, 33). ‘가정학습실험’의 결과에 따라서는 학습자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채 IT와 결합해서 교육을 초개인화(hyper-individuality)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백종민, 2020).

III. COVID-19 팬데믹과 교회교육

1. 팬데믹과 교회의 위기

역사적으로 거의 전례가 없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범세계적인 공포나 충격에 비해 지금껏 비교적 차분하면서도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교회들은 팬데믹의 진행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정부 보건당국의 방역지침대로 불필요한 모임들을 자제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한편,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간주하는 예배 역시 안전을 위해서 한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고, 현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과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고대부터 감염병 팬데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획득한 역사적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충격과 공포를 야기하고 있는 COVID-19 팬데믹은 세계 어느 곳도 더 이상 안전할 수 없고, 과도한 물질적 번영의 추구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성서의 교훈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에 교회가 극복해야 할 위기들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가 디지털 문화에 적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하고 있다. 상당수 교회들이 가상(virtual)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을 여전히 망설이고 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디지털 원주민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청년 세대는 물론, 일반 장년 교인들까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는 디지털 이민자 행렬에 동참하도록 몰아세우고 있다. 위기에 직면한 교인들은 팬데믹 초기와 달리 더 이상 온라인으로 예배에 접하는 것을 어색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디지털 온라인 방송을 통해 케언크로스(Frances Cairncross)와 힌센(Peter Hinssen)이 강조한 바 있는 ‘거리의 소멸’(Death of Distance)과 ‘시간의 소멸’(Death of Time)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파악했기 때문이다(2014, 300-305). 교회 내부의 매체환경 역시 준비된 인적자원의 확보와 무관하게 하비 콕스(Harvey Cox, 1985, 25)가 1960년대부터 줄곧 지적한 매스미디어 기반 전자교회(electronic church)에서 온라인 네트워크 중심의 디지털교회(digital church)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둘째, 갑작스런 권위의 몰락에 교회가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쿨턴(G. Coulton, 1921)은 “종교개혁은 어째서 늦어졌는가?”(Why did not the Reformation come earlier?)라는 논문에서 루터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도덕적으로나 교리적 위기가 상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이 발생하지 않은 원인을 새롭게 규명하려고 시도했다. 쿨턴의 결론에 따르면, 루터의 종교개혁과 이전 시대를 구별하는 경계가 된 게 바로 흑사병(Black Death)이다. 흑사병의 발병으로 도덕적으로나 교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한 중세교회 지도력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처럼 역사를 돌이켜 보면 팬데믹 이후에는 반드시 기존 질서의 몰락이 뒤따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흑사병은 중세 질서를 와해시켰을 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에 로마제국을 쇠락의 길로 이끌었다. 이것은 건강한 젊은이나 임산부의 목숨을 주로 공격했던 스페인독감과 달리 노인과 기저 질환자를 위협하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상당수 청년들이 교회와 거리를 유지하려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일부 단초가 될 수 있다(Karlen, 220-221).

셋째, 경제적인 문제로 교회 간 통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팬데믹의 영향으로 거의 70%에 가까운 교회들의 재정이 감소하고 있

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0). 일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소규모 교회들 역시 동일한 수준에서 겪고 있다. 교회들의 죽음은 더 이상 미국 교회들만의 문제로 간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교인들의 출석과 관련하여 8할 법칙이 6할 법칙으로 역시 바뀌고 있다. 톰 레이너(Thom Rainer, 2020)는 대략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교회들은 대개 160명 정도가 출석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팬데믹 이후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12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들이 앞장서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규모 교회들과 일종의 자매결연(church adoption)을 맺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교인들의 숫자나 재정이 넉넉한 건강한 교회들이 대개 1년간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해서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성장하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넷째, 전통적인 교회 문화가 소멸하거나 기초부터 변형되고 교회 공간의 재배치 작업이 활성화할 것이다. 팬데믹의 강력한 영향 가운데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보존해온 예전(liturgy)과 교회 문화의 전반적인 해체를 꾀할 수 있다. 교회들이 감염병의 충격을 극복하고 과거처럼 성장을 지속하더라도 소규모 예배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는 기독교의 오랜 전통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예컨대, 일반적인 사회생활처럼 악수나 가벼운 포옹 같은 신체 언어로 친근한 감정을 표현하는 인사법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 낯선 접촉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익명성, 그리고 더 나가서 해방감을 향유할 목적으로 착용한 마스크 때문에 정서 교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새로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성찬식과 유아세례, 혼인과 장례예배, 기타 절기 예배들의 진행절차와 거기에 활용되는 소품들 역시 새롭게 구성될 뿐 아니라 교제의 핵심을 차지해온 공동식사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비좁은 공간이 선호되지 않다 보니 교회 내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재설계와 통합이 진행될 것이다.

2. 팬데믹과 교육신학의 재설정

번영 대 창조질서 보존. COVID-19는 결정적인 재앙이 분명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 세계가 무엇을 지향해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시키는 결정적 계기(tipping point)가 되고 있다. 바이러스의 초기 확산 과정에서의 관리 책임 문제와 무관하게 팬데믹 덕분에 인간 사회가 과도하게 물질적 번영을 추구하느라 창조질서를 반성 없이 훼손해왔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공포 때문에 인적이 드물어지자 베네치아를 가로지르는 운하들이 갑자기 맑아져서 해파리들이 헤엄치고, 베네치아의 건물들이 투명한 물에 반영된다는 소식이나 매년 봄철에 예외 없이 날아든 황사와 스모그가 드물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기 오염도가 반감했다는 통계가 그 모든 게 사실이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한다(Hiscott et al., 2020). 이런 의도된 실책에 교회의 선택 역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 매일 한 종의 생물이 멸종하거나 매년 남한 면적의 3/4 크기의 열대림이 파괴되고, 기후의 균형이 깨져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하고, 10년마다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간과하면서 계발(unfoldment)이 아닌 개발(development)을 함께 지지해왔기 때문이다(세계개혁신교회 연맹본부, 1989).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한다는 것(요 3:16)과 함께 기술적인 지배와 인간의 과도한 탐욕으로 창조질서(창 1:27-31)를 훼손한 잘못을 성찰하면서 또다시 반복하지 않게 교육해야 한다. 팬데믹을 비롯해서 이른바 총체적 위협에 직면한 미래는 시간과 더불어 자명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창조’되어야 할 실체이고, “미래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생명의 시간은 인간의 힘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Moltman, 1990, 5).

공간 대 시간. 위르겐 몰트만(Juergen Moltmann, 1969)이 「종교, 혁명 그리고 미래」(Religion, Revolution and the Future)에서 지적한 것처럼

COVID-19 팬데믹은 무엇을 신앙생활과 교회교육의 근본 목적으로 삼아야 할지 역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몰트만의 제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의 목적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 속에 다가오는 표현이다. 달리 말해서 양적(공간) 추구보다 질적(시간)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게 진정한 신앙의 목표라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몰트만은 공간 속에서 누리는 자유와 시간 속에서 누리는 자유를 각각 구별한다. 그리고는 새로운 공간이 존재하는 미국은 공간의 자유를 추구하지만, 유럽은 이미 공간이 가득 차서 공간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으니 시간 속에서의 자유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인다. “새 세계는… 새 정신은 자유를 찾는 표현이지만, 그것은 한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를 변화하여 가는 내면적 혁명을 말한다”(Moltmann, 1969, xii). 과거처럼 교회학교 학습자들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양보다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학교 대 공동체. 팬데믹 때문에 각국 정부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학교시설을 폐쇄하자 학부모들과 학습자들은 학교의 근본 정체를 부분적으로 문제 삼게 되었다. 어원이 ‘한가하다’(schola)라는 뜻을 가진 학교는 더 이상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할 수 없었다(Nouwen, 1991, 4). 교육은 가르치는 내용보다 과정이 중요하고(H. Nouwen), 학습주제보다 학습자를 중시하고(I. Kant), 세속주의와 과학주의가 아닌 교육의 영적 원천의 회복에 힘쓰고(P. Palmer), 의무와 외경을 거듭 가르치고(A. Whitehead), 강요나 조작이 아닌 대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P. Freire), 그리고 닫힌 마음보다 열린 마음을 일깨우는 것(Z. Bauman)이라는 사실을 학교에서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헨리 나웬(1991, 5-15)의 주장처럼 학교교육은 경쟁적이고, 일방적이고, 단절적 성격의 폭력적 과정에 가깝게 변질하고 말았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비대면적으로 정보에 접속하도록 격려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학교의 교육은 학교식 수업(schooling)에서

탈피해서 교사와 학습자가 서로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쌍방향적이고, 또 바로 지금 교육의 현장에서 실행하는 구속적 과정(redemptive process)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회교육은 문자 그대로 학교 교육의 대안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IV.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교육의 방향

지금껏 논의한 내용을 기초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교육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공간으로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이질적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한 융합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한 형태 가운데는 모바일(또는 온라인) 교회학교(mobile/on-line church school)의 운영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수준을 탈피해서 지역별 또는 각 교단 차원에서 온라인 교회학교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1990년대에 등장했다가 논란 속에 사라진 이른바 사이버 교회나 최근 디지털 플랫폼 교회와 이 모바일 교회학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여부에 있다. 사이버 교회는 가시적 교회에서 비가시적 교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만 전적으로 활동하는 사이버 목사와 교인으로 구성된 조직이 실제로 온라인에 독립적으로 존재했다(유재덕 외, 2016, 167). 반면에 모바일 교회학교는 사이버 교회와 달리 단독으로 운영하지 않고, 교회나 교단의 교육 목적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교육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아울러서 가상공간의 모바일 교회학교는 교회학교 운영의 이해를 돕는 기본적인 교육부터 신입교사 교육, 또는 교사 재교육과 기독교 교양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다.

둘째, 지역 교회 수준에서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000년 후반에 미국 교육학자들이 온라인 교육의 한

계를 극복할 목적으로 제안하면서 다양하게 도입된 블렌디드 러닝은 원격 교육의 한 가지 형태로서 전통적 수업과 온라인 자료의 통합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들과 방법론을 통합하는 총체적 전략이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온라인 수업(비대면)과 오프라인 수업(면대면)이 혼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이정기, 2015).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학습환경을 상호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은 강의, 사례연구, 토론과 코칭, 멘토링 등 다양한 학습방법론과 전략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다. 협력 학습 역시 가능해서 학습자와 교사,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공동체, 학습자와 학습 도구, 학습자와 학습환경 등의 연계과정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최근의 팬데믹 상황에서는 시간을 각각 분리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거나 몇 주는 온라인, 또 몇 주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셋째, 가정과의 밀접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홈스쿨링(homeschooling) 형태의 교육을 통해 기존 교회학교의 운영을 보완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택학습으로도 번역되는 홈스쿨링은 일반 공교육제도와 무관하게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형태이다. 전통적으로는 국가교육 체계와 맞지 않아서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홈스쿨링을 장려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정상적인 홈스쿨링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습자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 여력이 있는 부모의 존재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Robson, 2020). 하지만 팬데믹 영향으로 주일에 학습자들이 교회학교에 참석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충분히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부모가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시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학습자들을 방문해서 지도하는 방식으로 홈스쿨링을 변형하는 것도 무방하다. 교단이나 지역별 교회학교 차원에서 교육에 필요한 전자도서나 독서 자료를 제공하는 이른바 모바일 도서관 운영 같은 정책을 발전적으로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다.

끝으로, 교회학교가 처음 출발 당시부터 줄곧 교수하는 교사 중심 또는

학습자 중심 학교식 수업(schooling) 모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학교 형태의 교회학교를 비판하면서 세대 간 교육을 강조하거나, 교육이라는 표현 대신 굳이 형성(formation)이라는 용어를 구사하기도 한다. 파커 파머(2000, 197-205)는 학교 교실에 '제4의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진리의 커뮤니티'를 도입하도록 제안한 바 있는데, 이 개념은 교회학교의 발전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머는 기존의 커뮤니티를 친밀성 중심의 치료 공동체, 상호연계적인 민간 공동체, 그리고 총체적 품질관리에 주력하는 마케팅으로 분류하고서 주제 중심의 진리 커뮤니티를 이상적 형태로 소개한다. 교사와 학습자들은 교실이 아닌 커뮤니티 안에서 주제에 집중하는 한편, 상호 의견을 존중하면서 질문이나 모순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도전이 가능하다. 팬데믹 시대에 특히 주제 중심의 진리 커뮤니티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교사 중심의 절대론이나 학습자 중심의 상대론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학습자가 학습과 삶의 에너지에 직접 접근이 가능한 진정한 학습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V. 나가는 말

전 세계는 지금껏 COVID-19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단편적 언론 보도에 따라 기대와 절망이 교차하는 삶을 반복 중이다. 모두가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 복귀를 꿈꾸지만, 과거 우리가 좋아하던 세계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대략 7개월 이상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 곧 일상은 어느덧 과거가 되어서 바이러스 이전에는 어땠는지 굳이 기억을 더듬어야 할 정도가 되었다. 그 사이에 마스크는 외출 필수품이 되었고, 사회적 거리 두기는 새로운 예절(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바이러스는 의료 위기(감염병 자체)와 경제 위기(감염병의 경제적 손실), 그리고 보다 강력한 심리적 위기라는 세 겹의 위

기로 일상의 좌표를 붕괴시켰다(Zizek, 2020, 113). 누군가의 지적처럼 언제든지 눈에 포착되지 않는 바이러스의 숙주가 될 가능성에 직면한 우리는 이제 ‘인간적’이라는 형용사에 다층적으로 포함된 ‘만지다’라는 뜻을 제거해도 그렇게 놀라지 않는다. 집 밖의 타자를 집으로 맞아들이는 환대(hospitality)의 책임 역시 당연하거나 한 듯이 유예되고 있다. 다만, 사회생활 전반에 과국을 초래하는 팬데믹의 종결과 그 시점까지의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 즉 ‘갈등 속에서 삶을 지속시키는 일시적 합의’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미네소타대학 CIDRAP연구소는 과거 인플루엔자 팬데믹 사례를 기초로 팬데믹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 첫째, 올해 상반기와 유사한 확산세가 1, 2년간 간헐적으로 반복되다가 2021년 어느 시점에 점차 소멸한다. 둘째, 스페인독감(1918-19년)과 신종플루(2009-10년)처럼 초기의 확산세가 여름에 진정되다가 올가을과 겨울에 더 크게 확산되고, 2021년에는 한 차례 이상 소규모 확산이 이어진다. 셋째, 올해 상반기 확산세가 진정되고 대규모 확산 없이 감염병 발생이 산발적으로 지속된다. 이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과거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COVID-19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 모든 세 가지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단기간의 팬데믹 해소와 완벽한 퇴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Moore et al., 2020). CIDRAP은 변수가 있지만 최소한 18개월 내지 24개월 간 팬데믹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오랫동안 유동성(liquidity)을 은유로 삼아서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문제에 천착한 지그문트 바우만(Zigmunt Bauman)은 과학과 기술이 극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가 속한 문명의 전환기를 “최고 권력의 공백 기간 속에서 살고 있는 ‘인터레그넘’(interregnum)”으로 규정한 바 있다(안희경, 2014). 옛 방식이 매우 빨리 노화하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활동은 방법조차 개발되지 않은 상태를, 기존에 통치하던 임금이 사망했음에도 새로운 임금이 즉위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을 빗대어서 인터레그넘이

라고 부른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출발 지점은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목적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비전이 불분명한 상태가 바로 인터레그넘이다. 팬데믹 훨씬 이전의 분석이지만 강력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기존의 의학 및 정치경제 패러다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에도, 새로운 해결책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제대로 부합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는 인터레그넘의 교회교육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일차적으로, 교회교육은 급변하는 주변 상황(탈세계화, 또는 디지털 문화와 교육체제)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딜레마는 권위 있는 공인된 교육적 처방이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합리적인 선택은 규칙에 순응하는 태도(conformity)가 아니라 규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flexibility)을 강조하고 함양하는 것이다(Bauman, 2010, 11). 둘째, 위기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과거의 견고한 구조로부터 일종의 불확실한 네트워크로 전환해야 하는 교회와 교회교육은 팬데믹 시대에 요구되는 기독교의 가치(창조질서 보존, 질적 변화, 공동체)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교육 신학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상호 결합한 모바일(또는 온라인)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동시에 비대면과 면대면 학습을 혼용하는 학습방식(Blended Learning)을 도입하고, 교회학교와 홈스쿨링을 결합해서 교회와 가정이 교육의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그리고 끝으로, 학습자나 교사 중심 수업을 탈피해서 질문을 통해 주제에 직접 접근하도록 돕는 진리 커뮤니티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예언자처럼 파멸의 영역에서 구원을, 시간적인 것의 멸망에서 영원한 것의 현재를 일깨우는 진정한 타자성을 경험할 수 있다(Tillich, 2012, 11).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사 54:10)

참 고 문 헌

- 김문관 (2020. 5. 12.). 미래학자에게 듣는 포스트 코로나: 토머스 프레이.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1/2020051103284.html에서 인출.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0. 4. 10). 코로나19의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numbers**. 1-50.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42th_200410_Full.pdf에서 인출.
- 백종민 (2020. 6. 15.). 코로나19, 가장 값비싼 위기...혁신 창의성의 시대 될 것.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1511283231877>에서 인출.
- 세계개척교회연맹본부 (1989).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 송홍근 (2020. 1. 30). 스페인독감, 식민지 조선을 휩쓸다. **신동아**.
<https://shindonga.donga.com/List/3/8801010053/13/1966557/1>에서 인출.
- 안희경 (2014. 3. 24). 문명, 그 길을 묻다-세계 지성과의 대화: 지그문트 바우만.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4201403242145115에서 인출.
- 안희경 (2020. 6. 11a). 7인의 석학에게 미래를 묻다: 원테젠.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10600025&code=960100&s_code=ac298에서 인출.
- 안희경 (2020. 6. 25b). 7인의 석학에게 미래를 묻다: 유발 하라리.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250600005에서 인출.
- 양영유 (2020. 5. 16). 정글 속 상아탑. **중앙SUNDAY**.
<https://news.join.com/article/23778151>에서 인출.
- 유재덕 외 (2016). **미래 시대, 미래 세대, 미래 교육**. 서울: 기독교.
- 이재 (2020. 4. 28). '원격수업' 닦친 교실 진단 시도...원론적 접근 아쉬워. **조선에듀**.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8/2020042803621.html에서 인출.
- 이정기 (2015). **온라인 대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Agamben, G. (2020). Coronavirus and philosophers. *The European Journal of Psychoanalysis*.
www.journal-psychoanalysis.eu/coronavirus-and-philosophers에서 인출.
- Bauman, Z. (2010) **모두스 비헨디: 유동하는 세계의 지옥과 유토피아**. 한상석 역.

서울: 후마니타스. (원저 2006 출판)

- Cadoz, C. *et al.* (2014, September). Tangibility, presence, materiality, reality in artistic creation with digital technology. *40th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Conference/11th Sound and Music Computing Conference.*
- CDC (2020, February 18). What you need to know about coronavirus disease 2019. <https://health.rti.gov/publications/factsheets/novel-coronavirus.pdf> 에서 인출.
- CIDRAP (2020, April 30). *COVID-19: the CIDRAP viewpoint.* 1-8. https://www.cidrap.umn.edu/sites/default/files/public/downloads/cidrap-covid19-viewpoint-part1_0.pdf에서 인출.
- Coulton, G. (1921, November). Why did not the reformation come earlier?. *Modern Churchman*, 11, 8. 427-437.
- Cox, H. (1985). *Religion in the secular c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Curran, J., Fenton, N. & Freedman, D. (2012). *Misunderstanding the internet.* New York: Routledge.
- Diamond, J. (1998). **총, 균, 쇠.** 김진준 역. 서울: 문학사상사. (원저 1997 출판)
- Fox-Skelly, J. (2017, May 4). Long-dormant bacteria and virus, trapped in ice and permafrost for centuries, are reviving as earth's climate warms. BBC. <http://www.bbc.com/earth/story/20170504-there-are-diseases-hidden-in-ice-and-they-are-waking-up>에서 인출.
- Greengard, S. (2019). *Virtual reality.* Cambridge: The MIT Press.
- Hinssen, P. (2014). **뉴노멀.** 이영진 역. 서울: 흐름출판. (원저 2010 출판)
- Hiscott, John *et al.* (2020). The global impac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Cytokine and Growth Factor Review*, 53, 1-9.
- Karlen, A. **전염병의 문화사.** 권복규 역.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1. (원저 1996 출판)
- Mansell, R. (2012). *Imagining the internet: communication, innovation, and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ischke, J. (2020, January 30). Coronavirus: WHO declares global emergency. *Politico.*
- Moltmann, J. (1969). *Religion, revolution and the futur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Moltmann, J. (1990). **정의가 미래를 창조한다.** 안명옥 역. 왜관: 분도출판사. (원저

1989 출판)

- Nicola, M. *et al.* (2020). The Socio-economic implications of the coronavirus pandemic(COVID-19):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78, 185-193.
- Nouwen, H. (1991). *Creative ministry*. New York: Doubleday.
- Palmer, P. (2000).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이종인 역. 서울: 한문화. (원저 1997 출판)
- Papastephanou, M. (2005). Globalisation, globalism and cosmopolitanism as an educational ideal.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Vol. 37, No. 4, 534-538.
- Patel, A. & Jernigan, D. (2020). Initial public health response and interim clinical guidance for the 2019 novel coronavirus outbreak-United States, Dec. 31, 2019-Feb. 4, 2020.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69, 5, 140-146.
- Rainer, T. (2020, Mar. 18). What will the post-coronavirus church look like? <https://churchanswers.com/blog/what-will-the-post-coronavirus-church-look-like>에서 인출.
- Reimer, Everett (1982). **학교는 죽었다**. 김석원 역. 서울: 한마당. (원저 1971 출판)
- Robson, D. (2020. 6. 7). 코로나19: 달라지는 아이들...‘잃어버린 세대 될까?’ *BBC NEWS*. <https://www.bbc.com/korean/news-52953309>에서 인출
- Scriba, G. (2006, Nov.). The 16th century plague and the present AIDS pandemic. *Journal of Theology for Sourthern Africa*, 126. 66-80.
- Selwyn, N. (2013). *Education in a digital world: Global perspectives on technology and education*. New York: Routledge.
- Stark, R. (1992). Epidemics, networks, and the rise of Christianity. *Semeia*, 56, 159-175.
- Tillich, P. (2012). *Shaking of the foundations*.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 Zizek, S. (2020). **팬데믹 패닉: 코로나19는 세계를 어떻게 뒤흔들었는가**. 강우성 역. 서울: 북하우스. (원저 2020 출판)

Abstract

Church Education in the COVID-19 Era

Jae Deog Yu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WHO), paying attention to the spread and fatality of the coronavirus(COVID-19), which first occurred in Wuhan, China, declared a global emergency. Although many countries implement strict measures to slow down the spread, WHO officially declared a pandemic. COVID-19 has sparked fears of an impending economic crisis and recession. Due to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social distancing, self-isolation and travel restrictions, the collapse of the world economic system centered on free trade and the decline of globalization are mentioned. Political leadership that has not responded properly to the pandemic is challenged, and nearly all of society is rapidly changing to a non-contact and immobile culture. COVID-19 has seriously affected all levels of the education system, from preschool to tertiary education. The so-called old concept of deschooling is realizing in the field of education through digital media paradoxically. Church education is facing a serious crisis as well. Churches are seeking now a new normal that includes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pandemic, online worship, education, and non-face-to-face ministry to overcome the worst unexpected crisis. In the post-corona era, church education must actively seek alternatives in response to rapidly changing surrounding conditions and reconstruct educational philosophy(theology) that focuses on Christian valu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art operating a mobile(or online) church school that combines offline and onlin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Blended Learning' method that combines non-face-to-face and face-to-face learning, and by combining

church school and homeschooling, churches and families need to share the responsibility of education in faith.

《 **Keywords** 》

COVID-19 pandemic, Church education, New normal, Educational philosophy, Mobile(or online) church school, Blended learning, Homeschooling

- 투고접수일 : 2020년 8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9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29일